

종립학교를 가다

(7)해동고등학교

부산불교를 지켜갈 알찬 씨앗이 뿌려지고 실직한 절기가 자라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해동고등학교이다. 해방직후인 1946년 개교한 이래 62년동안 2만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해동고등학교는 부산시내 남자 사립학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명문이다. 부산에서 유일한 종립고등학교이기도 한 해동고는 통도사 서운암의 성파스님을 이사

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 우주만유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중심에는 새벽 시간부터 밝이 밝혀지는 해동고의 법당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널리 퍼는 것이 학교 설립의 근본 취지이며 운영의 핵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나 찾기 청소년 팔관재 모임

29일부터 팔공산·감포서
선수련·문화재 답사 등

정원경가꾸기 △부처님그리기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
진다.

한국불교청년회(이사장 도각 스님)와 마음의 전화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구 팔공산과 감포 문무왕릉 일대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 밝은 미래를 열자'란 주제로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재 큰모임을 연다. 문화관광부와 태고종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 심리상담과 선수련 △팔관재 수계 △문화재 답사 △자연과 함께하는 호연지기 △태고보우 원종국사의 효사상 강의 △청

이사장 도각 스님은 "팔관재 큰모임이란 태고보우 원종국사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계승시켜 참된 가치를 심어주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수행과 정진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만큼 청소년들이 신심을 고취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23일까지이며 참가 청소년들에게는 24시간 봉사활동 확인서가 지급된다. 02-326-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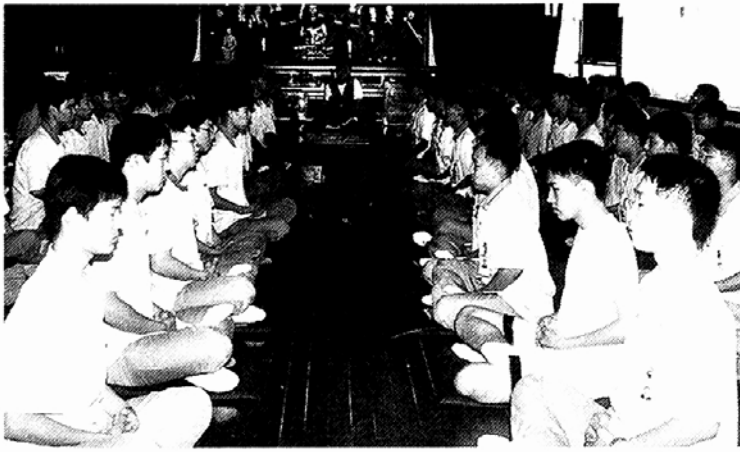
염불·향 그윽한 교정... "학교폭력 몰라요"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경을 듣고 향내음을 맡으며 해동인들은 아침을 연다. 이처럼 해동고를 살아 있는 부처님 도량으로 만드는 법당에는 매일 이른 시간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배가 줄을 잇는다. 법당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은 종교적인 의미에 앞서 하루를 계획하고 일상의 감사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5분 명상은 맑은 심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함께 교사들도 삼귀의례로 시작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자고 서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오·무리 큰 배라도 방향타만 잘 잡으면 항해는 순조롭기 마련. 요즘의 해동고가 그렇다. 종립학교의 기본이며 핵심인 교법사가 우뚝 서야 학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교법사를 존중하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이어왔다. 학교장이 앞장서 교법사를 존중함으로써 모든 해동인들은 교법사를 통해 전달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큰 방향타를 갖게 된 셈이다.

설립 초기와는 달리 시설면에서 낙후되었던 해동고는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불자들의 지원을 받아 최신 설비를 갖춘 강당과 교실을 증축한다. 11월 중순 착공해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그동안 교무실 옆에 위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려웠던 법당



1946년 개교한 해동고등학교는 이사장 성파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안정수 교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랑하는 해동고는 교실붕괴나 학교 폭력이 없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법사를 중심으로 법당은 곧바로 학교 생활권의 기능을 발휘, 자발적인 참회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www.haedong.hs.kr) 공간에 해동건의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고민에 대해 교사, 교감, 교장이 직접 나서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동인은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문제발생의 뿌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가상공간의 의사소통은 학교 특색 사업인 편지쓰기에서 되살아나 보은의 마음을 해동인에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4백여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인터넷 법당(http://www.cafe.daum.net/d) 배움을 수 없는 자람이다. 가상공간을 통한 법회와 신행을 이어가며 사이버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인터넷 법당에서 해동인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키워가고 있다.

'실력'과 '심성 함양'이라는 두 열매를 알차게 맺은 수령 6실을 넘은 거목 해동고는 자비(남을 도우자) 자기(나를 알자) 실행(몸소 행하자)이라는 교훈을 체득한 인재들을 배출, 세상 곳곳에 불심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교법사 존중 풍토 자랑

11월 최신식 건물 증축

도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법당공간을 일반인들을 위한 교리강좌나 문화강좌에 활용함으로써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학부모회를 구성해 모든 경영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교내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인터넷 법당 신행도 활발

실현한 해동고는 1998년 교내 네트워크 및 초고속 국가망을 갖추어 개별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같은 교육환경 조성의 결실로 1980년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비롯 지난해 9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내는 등 부산 최고의 대학 합격률을 자

"부지런하면 통한다" 교육철학

해동고 김명배 교장



해동고 출신인 김명배(사진) 교장은 학교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6시 50분 출근부터 밤 8시 퇴근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학교 구석 구석을 가꾸기 때문이다. 휴지를 줌과 학생들 휴식공간인 화단을 돌보는 김교장의 바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매일 어김없이 법당 부처님을 뵙고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김교장은 말없는 행으로 "부지런하면 통한다"는 평소 소신을 펴고 있다. 또한 김교장은 "종립학교에서 교법사는 전쟁터의 지휘자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며 "건학 이념을 살려 부처님 법이 살아 있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립학교 스스로 불법과 교법사의 귀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의 향기로 아이들의 심성이 맑아지고 불교철학이 아이들의 인생철학이 되는 것을 볼 때 종립학교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는 김교장은 아이들의 언행, 일상 등 중심에 부처님 법이 살아 있도록 하는 교육을 향해 굳은 심부름을 마다 않는다.

모교사랑에 33년을 잘나처럼 보내온 김교장은 "남은 임기동안 후배들이자 제자인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법사실에서

안정수 교법사

말보다 행·마음으로 포교

"나 라는 상을 깨고 말보다는 행과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친근하고 다정한 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해동고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수 법사는 말없이 교사나 학생들을 맞이하는 법당의 부처님을 닮고 싶다.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보여 언제나 조심스러운 안법사는 그러나 해동고 법당 운영에 활기를 되찾게 한 장본인. 가장 먼저 법당문을 열고 해동인들의 시작을 준비하는 안법사는 해동고의 법당에 끼

노인 말벗 봉사·진료보조 '눈길'

동아리 팀방

불교학생회

현재 62기가 활동중인 불교학생회는 학교와 역사를 같이하며 오랜 전통과 깊은 신심을 자랑하는 모임으로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매일 봉행되는 아침예불, 저녁예불 준비와 매주 토요일 학생회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가하면 매달 13주 일요일 두 송복지관 봉사활동, 인터넷 해동고 법당 운영 등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동폭은 넓다. 특히 불교학생회가 직접 연인을 빛어 만든 연등은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들



지지 않는 촛불을 밝히고 있어 그 정성과 원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이 특별한 데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안 법사는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또 개선하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안법사의 또 다른 원력 하나는 법당이전. 현재의 법당이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로 법당을 이전하고 학부모, 지역민 모두에게 개방해 교리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 침터인 법당을 장엄하는가 하면 초파일이면 학교 전체를 천개의 등불로 장엄해 '학교가 부처님 도량'이라는 찬사를 받게 하는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학교 인품에서 펼쳐지고 있는 활동들은 이미 부산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의 뒤를 이어 부산불교의 기둥이 될 인재들을 확신케 한다.

스트레칭

1. 어머니의 자궁안에 있는 태아같이 무릎을 끌어당겨 손으로 안으면서 한쪽 옆으로 구르듯이 눕는다.
2. '이' 소리를 내며 옆으로 누운채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편다.



무릎 끌어당겨

복근근육 강화



3. 두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단전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숨을 들이마시듯이 천천히 구르듯 눕는다.
4. '뽕'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눕고, '꼬' 소리를 내며 처음 방향으로 반복한다.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스트레칭의 반복으로 배근육이 당기면서 강화되고, 척추와 골반이 늘어지면서 반대로 복근 근육을 조여준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푹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